

勞 動 經 濟 論 集
第18卷(1), 1995. 12. pp.241~24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新國際經濟秩序下에서의 世界化戰略 構想

康 奉 均

< 目 次 >

- | | |
|----------------|---------------------|
| I. 新國際經濟秩序의 意義 | 世界化 |
| II. 國家發展戰略으로서의 | III. 世界化時代의 勞動政策 方向 |

I. 新國際經濟秩序의 意義

1990年代 들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世界經濟環境의 急激하고 전반적인 變化를 「新國際經濟秩序」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는 學界뿐 아니라 실제 經濟活動에 종사하는 企業 등 經濟主體나 政策樹立과 執行을 담당하는 政策部署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冷戰體制의 終熄 이후 國際情勢의 급격한 再編過程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國際經濟秩序의 變化過程은 그만큼 그 速度와 範圍가 매우 빠르고 폭넓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新國際經濟秩序 變化의 주요한 내용은 물론 WTO體制的 出帆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점차 擴散되고 있는 地域主義의 趨勢와 世界市場의 統合에 따른 經濟活動의 汎世界化趨勢에 대하여도, 또한 國際經濟秩序 變化의 올바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精確한 理解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WTO出帆이 갖는 意味를 살펴보면, 1995年은 지난 1948年 이래 世界貿易秩序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幕을 내리고 向後 및 21世紀의 國際經濟를 展望할 WTO(世界貿易機構)가 正식으로 出帆함으로써 世界經濟發展에 한 劃을 긋는 歷史的인 해로 記錄될 것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이다. WTO의 出帆은 80年代에 들어와서 점차 악화되어 保護貿易主義로까지 變質되어 가던 全世界 自由貿易體制를 다시 回復·強化시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GATT規範이 交易自由化의 범위를 工産品으로 한정하였던 반면 WTO는 工産品과 農産物 뿐만 아니라 서비스, 投資, 知的財産權 등 經濟活動의 거의 全部門으로 확대하고 있다. 對象國家數도 開途國의 參與擴大에 힘입어 120여 會員國에 이르는 등 세계의 主要交易國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世界經濟 統合趨勢가 加速化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신속한 意思決定과 協定違反에 대한 拘束力있는 制裁措置를 통하여 世界貿易規範의 實效性 確保가 가능하게 되었다.

WTO體制的 出帆을 낳은 多者間 世界共同規範 制定의 움직임은 앞으로 環境, 競爭政策, 勞動, 技術政策 등 世界經濟의 主要懸案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년 「리우」 會談 이래 環境問題에 대한 多者間 協商인 Green Round의 開始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미 WTO 閣僚會議 산하에 「貿易·環境委員會」가 설치되어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WTO出帆에 따른 貿易의 世界化 與件 속에서 外國商品과 企業의 진출에 대한 國內의 進入障壁 등이 競爭政策이 새로운 通商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會員國들을 중심으로 科學技術과 관련된 研究開發(R&D) 補助金を 規制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後發國의 技術開發을 효과적으로 統制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論議가 다소 주춤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勞動基準과 貿易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Blue Round 論議 역시 開途國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課題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世界經濟는 점차 國境없는 地球村 經濟로 統合되어가는 한편 個別國家들은 生存을 위한 無限競爭時代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通商이슈의 대두는 自由貿易秩序下에서 先進國과 開途國間的 論爭의 불씨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번째로 WTO 出帆에 의한 世界市場 統合의 現象과 얼핏 보아 상반된 方向으로 전개되고 있는 EU, NAFTA, APEC 등 地域主義의 擴散이 갖는 含蓄的 意味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의 單一經濟圈化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東歐圈을 포함한 廣域유럽經濟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美國中心의 廣域經濟圈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은 궁극적으로 南·北美 全域의 34개 국가를 망라하는 美洲自由貿易地帶(FTAA)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亞·太經濟協力體(APEC) 역시 「시애틀」 會議 이후 두 차례의 頂上會談 開催를 통해 경제블록으로의 指向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地域主義가 特惠的·排他的 블럭化에 의해 世界交易環境을 惡化시킬 것이라는 憂慮가 있지만 WTO體制를 補完하여 多者間 交易秩序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부

정할 수 없다. '開放의 地域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APEC의 경우 貿易自由化 등 협력의 성과를 域外國에도 無差別의으로 허용함으로써 汎世界的 自由化의 진전에 기여하게 되며, NAFTA의 경우, 단순히 關稅·非關稅 障壁의 撤廢를 넘어 서비스市場 開放 및 投資活動의 保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오히려 더 未來指向의인 自由化를 先導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世界貿易秩序의 앞날은 WTO體制와 여타 地域經濟블럭 등과의 相互作用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WTO體制 出帆에 따른 交易障壁의 緩和 및 撤廢, 情報·通信技術의 발달 등으로 인한 世界市場 統合이 갖는 意味를 살펴본다. '하나의 市場時代'의 전개에 발맞추어 모든 國家와 企業의 활동이 經濟의 각 분야에 걸쳐 凡世界的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보인다. 貿易依存度가 높아짐으로써 國家經濟間 相互依存性이 보다 증대되며 企業은 전세계를 상대로 資本, 勞動, 技術 및 經營 與件을 最適 結合하여 生産·販賣하는 企業活動의 汎世界化가 촉진되고 있다. 企業과 世界의 關係는 과거 國家를 매개로 한 間接的인 관계에서 直接的인 관계로 전환되는 등 企業과 國家는 이제 對等한 實體로 共存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企業의 世界化는 先進國企業에서 開途國企業으로, 大企業에서 中小企業으로 점차 普遍化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國際經濟秩序는 先進圈 進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經濟에 여러 가지를 示唆하고 있다. 世界市場이 統合됨으로써 그동안 個別 國民經濟의 活動 領域을 규정하던 市場制約이 해소되어 經濟的 潛在力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機會로 등장하고 있는 동시에 對外開放의 擴大로 외국기업들과의 無差別의 競爭이 심화되고 정부의 保護主義的 産業政策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國際競爭秩序 속에서는 企業人들의 創意를 極大化하기 위한 規制의 緩和와 緩和된 政府規制下에서 公正한 競爭을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의 確立이 중요하고, 아울러 産業人力의 質을 높여 나갈 수 있는 人力開發政策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秩序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對應努力이 수반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經濟를 開放시켜 企業의 世界化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産業構造의 先進化를 유도하는 肯定的인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對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WTO體制의 出帆에 따라 2002年 基準으로 2.3%의 追加 經濟成長이 예상되는 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評價하고 있는 OECD의 分析結果는 意味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I. 國家發展戰略으로서의 世界化

1. 世界化의 意味

21世紀를 앞두고 全世界는 大激變의 ‘世界化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冷戰時代의 終息으로 全世界가 自由市場經濟와 民主政治體制로 統合되고, 世界單一市場 形成에 의해 國家間, 國民間, 地域間 經濟的 相互依存性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交通 및 情報通信의 발달로 國境과 거리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變化는 단순히 時間이 경과함에 따른 量的인 變化가 아니며 人類文明史의 패러다임의 變化로서 삶의 모습을 根本적으로 바꾸는 質的인 變化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90년대에 새롭게 전개되는 國際經濟秩序는 이러한 世界化時代의 한 部分秩序이자 經濟部門에 투영된 世界化時代의 다른 側面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國政目標로서의 世界化는 이러한 世界的인 變革의 時代를 맞아 21世紀 世界一流圈 國家로의 發展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未來指向의 生存戰略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즉, 國境없는 無限競爭 속에서 國家뿐만 아니라 地方, 企業, 國民 모두가 主體가 되어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意識 등 모든 領域에서 世界一流水準이 되고 나아가 人類共同繁榮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經濟部門에 있어 世界化는 우리의 成長潛在力을 持續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世界經濟 흐름에 能動的으로 참여하는 ‘世界一流圈 國家’를 指向해 나가는 것이 基本目標이라고 할 수 있다.

2. 經濟部門의 世界化推進戰略

가. 경제제도의 선진화

UR協商的 妥結에 따라 앞으로 WTO를 中心으로 각종 部門別 國際規範의 強化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世界經濟의 新秩序 構築過程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國內 制度를 國際規範에 맞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先決課題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經濟는 海外市場을 일방적으로 進出·功略하는 과거의 成長戰略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世界市場을 世界人의 經濟的 共同利益을 추구하는 場으로 인식하는 共存共榮의 精神을 토대로 制度改善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方向으로는 우선 對外的으로 '열린 市場'에 상응하는 開放된 競爭體制를 확립하여 國際的인 相互交流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WTO體制에 걸맞게 實質的인 對外開放의 폭을 擴大해 나가되 종래의 市場開放壓力에 대한 受動的 對應이 아닌 能動的인 實施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對內的으로 모든 國民과 企業이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世界舞臺에서 자신의 能力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與件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누구나 자유롭게 創業을 할 수 있고 非效率的인 기업은 競爭壓力에 의해 자연히 도태될 수 있도록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秩序를 確立해야 하며, 둘째, 서비스위주의 經濟行政體制를 구축해 나가고 政策의 樹立과 執行過程에서 透明性, 一貫性, 合理性을 提高함으로써 經濟主體들의 經濟活動을 위한 豫測可能性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財政·稅制·金融 등 經濟 各部門의 制度·慣行·意識을 世界化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先進化하고 合理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알기 쉽고 이행하기 쉽도록 經濟制度를 單純·明瞭化하게 하고 例外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세계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

新國際經濟秩序下的 '國家競爭力'의 強化는 企業에 대해 金融·稅制 등을 통한 政府의 直接的인 保護와 支援體制에서 탈피하여 企業들에게 間接的으로 外部效果를 제공할 수 있는 體制로 轉換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個別産業이나 特定企業群에게 인위적인 競爭力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國家經濟體制의 效率性提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世界的으로 企業하기 유리한 與件과 基盤을 造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世界一流企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施策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生産要素費用을 競爭國水準 以下로 낮추기 위한 先進國型 物價安定基調의 조기 정착이 중요하다. 둘째, 情報·技術·人力·社會間接資本 등 競爭力의 源泉이 되는 下部基盤構造의 擴充이 필요하다. 情報化時代의 기반이 되는 情報네트워크를 확충하고 社會 각 部門의 情報化를 촉진하며 科學技術投資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産業構造高度化에 副應하여 産業人力의 質的 擴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人力養成體制를 개편·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未來의 交通需要에 대비하는 長期的인 國家輸送網體系의 구축도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러 企業活動을 制約하고 있는 準租稅의 性格의 각종 非效率的 社會費用을 縮小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課題라 하겠다.

다.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대외경제전략의 추진

WTO의 出帆으로 自由貿易體制로의 큰 흐름이 정해진 世界經濟는 國家間的 經濟블럭화 추세와 새로운 通商이슈의 제기 등으로 지속적인 變貌를 추구하고 있다. 國境없는 競爭과 協力の 時代를 맞아 各國이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위한 實利外交에 전념하고 있는 國際經濟現實을 直視하여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形成에 能動的으로 參與하는 戰略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世界속의 韓國經濟'를 실현할 수 있는 全方位 對外經濟協力體制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先·後進國間的 中間者의 位置를 활용하여 國際 多者間 協力에 能動的으로 기여하고 APEC을 中心으로 한 폭넓은 亞·太經濟協力を 추구하고면서 東北亞 據點國家로의 發展戰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先進國間 協議體인 OECD加入을 통해 世界經濟秩序의 形成에 主導的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相對國의 발전이 나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開途國과는 開發經驗의 傳授, 開發援助의 擴大 등 우리 經濟能力에 상응하는 互惠的 協力關係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汎世界的 企業經營, 海外同胞社會 活性化, 對外專門人力養成 등 對外進出 關聯政策을 世界化的 관점에 맞춰 근본적으로 再檢討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

世界化時代는 國民의 福祉와 삶의 質에 대한 國家의 關心과 義務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이다. 世界化時代의 無限競爭은 競爭力이 강한 階層과 競爭力이 脆弱한 階層의 격차를 확대시켜 社會葛藤 要因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量的 成長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均衡있는 社會를 만들어 社會的 統合과 國民的 一體感을 유지하는 것은 世界化時代에 그 國家의 總體的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重要課題라 하겠다. 또한 人間價值的 實現을 위한 삶의 質 向上은 國民들의 勤勞意慾과 參與欲求를 높여줌으로써 國家競爭力의 主要 源泉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農漁村·中小企業 등 世界化時代에 뒤떨어지기 쉬운 脆弱한 部門의 自生的 競爭力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政策 重點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地方化·分權化時代에 맞는 地域均衡發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社會의 安定을 도모하면서 勤勞意慾

을 고취시켜 社會全體의 生産性이 향상될 수 있는 韓國型 福祉政策의 실시와 開發과 保全의 實質的 調和를 통해 사람과 自然이 함께 사는 環境共同體를 건설해 나가는 것도 當面 課題라고 하겠다.

III. 世界化時代의 勞動政策 方向

1. 勞使關係의 國際環境變化

WTO 出帆으로 인한 世界市場統合 등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는 勞使關係에 있어서도 本質的인 變化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WTO體制의 公正貿易慣行은 個別國家의 各種 産業支援施策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勞使가 함께 향유하던 國內市場에서의 獨占的 지대를 縮小 또는 消滅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自由貿易秩序下의 物資의 自由로운 移動에 비해 生産要素로서의 勞動力的 移動은 制限的이고 品質改善과 技術開發能力이 國內勞動力的 質에 좌우되기 때문에 人力資源의 開發과 活用이 國際競爭力에 중요한 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通商 이슈중의 하나인 Blue Round 論議가 구체화될 경우 勞動基準과 貿易을 연계시킴으로써 國內 勞使關係의 質的인 變化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社會主義 體制의 崩壞 역시 勞使關係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勞動運動에서 名分보다 實益을 추구하는 現實主義로의 方向轉換과 병행하여 使用者側은 企業價値를 勤勞者와 함께 共有한다는 勞使觀이 擴散되는 등 勞使關係를 기본적으로 對立보다는 協調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勞動政策의 새로운 方向摸索

勞使關係의 國際的 環境變化와 더불어 國內의 勞使關係에도 質的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1987年 이후 우리의 勞使關係는 매우 급격한 構造的 變化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過去 經營權 優位의 勞使關係에서 勞動權과 經營權이 均衡을 이루는 民主的 勞使關係로의 轉換이라고 할 수 있다. 世界化時代의 韓國勞使關係는 궁극적으로 先進國 水準의 制度와 慣行을 정착시켜 가는 것을 目標로 해야 할 것이다. 國家競爭力強化의 實質的 源泉이 될 수 있도록 協力的·生産的 勞使關係의 定立과 함께 國際規範에 合致되는 勞動基準의 整備,

勞動市場의 새로운 環境變化에 대응한 制度의 先進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勞使關係制度의 正립은 勞使關係의 직접당사자인 勞動界와 經營界 그리고 勞動界 內部的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勞使制度야말로 모든 企業과 勤勞者들의 利害關係 사항이므로 결국 全國民에게 影響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賃金調整은 상대적으로 短期的인 것이므로 여기에 모든 勞使의 에너지가 消耗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中長期的으로 勤勞者의 福祉를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이 勞使雙方에 의해서 摸索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勞使關係가 企業世界化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産業構造調整 및 企業經營革新을 유도하는 柔軟한 人力管理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制度의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며, 勞動力 構成變化 및 就業形態의 多樣化 등 새로운 추세를 수용할 수 있도록 制度가 先進化되어야 할 것이다. 汎世界的인 自由貿易秩序下에 國際的 比較優位의 결정적 요인이 될 勞動力의 質을 높이고 産業構造의 高度化 등 대내외 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하여 雇傭安定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人力資源의 開發 및 活用の 極大化가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또한 勞使關係 安定 및 勤勞者의 參與意識을 높이기 위한 勤勞者의 삶의 質 向上도 政策優先順位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